

6·10항쟁 30주년 기념식 민·관 공동 개최

반쪽행사 4년만에...5·18, 세월호·백남기 유가족 등 참여 광주·전남도 행사 다채...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 내정

올해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돼 치러진다. 4년만의 공동 행사다.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화의 값진 선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에 반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박상증 전 이사장 등 이사진들의 임기가 완료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도 해소됐다.

신임 이사장에는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한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행정자치부와 6월민주항쟁30년광주전남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부는 2007년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올해까지 11년째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박상증 전 이사장 등 2014년 구성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을 두고 '보수 편향 낙하산'이라며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행사가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이 임기를 다해 전면

물갈이되는 등 정국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갈등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에서도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오는 10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주년 기념 선언문'도 채택된다. '6월민주항쟁 30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집한 1987명의 시·도민추진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6·10민주항쟁 시국선언문을 채택·낭독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5·18단체 회원들은 물론 고 백남기 농민 유족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에는 각 종단별 집회가 열리고, 오후 5시 서현교회에서 금남로까지 열사들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국

민평화대행진'이 재연된다.

문화행사도 이어진다. 다음달 24일부터 8월19일까지 6월민주항쟁 30년 기획전시에 들어간다. 6·10항쟁 기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기기 위해서 기획됐다. 6월 항쟁 다큐멘터리도 상영할 예정이다.

여수와 목포에서도 6·10항쟁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 행사를 위해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는 광주시 7500만원, 전남 5000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0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핵심 사업은 '운동사 정리'다. 6월항쟁이 광주, 대한민국 운동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실관계 속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15:47
해질 19:44 달지기 02:51

꼭 타는 대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6/30	보성	13/28
목포	16/27	순천	16/29
여수	18/27	영광	13/29
나주	12/30	진도	12/27
완도	16/27	전주	13/29
구례	11/29	군산	14/27
강진	14/29	남원	12/29
해남	13/29	홍산도	16/24
장성	12/2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남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서부	남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4:31	16:51	11:20	12:28
	00:13	12:28	06:17	19:08

주간 날씨

날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날씨	☀️	☀️	☀️	☀️	☁️	☀️	☀️
기온	15/19	19/24	16/27	16/28	19/25	19/29	19/29



21세기 도심 '광주목사 출정행렬' '제5회 광주 사직 단오제'가 3일 광주시 남구 향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이정삼 남구 부구청장 등이 사직대제를 지내기 위해 관청을 나서는 '광주목사 출정행렬'을 재현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일 기다리던 '비' 온다...10일도 예약

6일과 10일 광주·전남지역에 가뭄을 해결할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부터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낮부터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는 7

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면서 6일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졌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5일 예상기온은 아침 11~18도, 낮 최고 27~30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6

일에만 최소 1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내리면서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재기자 e16621@

초·중·고 우유·과일 급식 확대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과 과일 급식을 확대한다. 탄산음료에 밀린 우유와 패스트푸드에 밀린 과일 섭취율을 끌어올려 학생 건강 측면에서 교육복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모든 학교가 우유 급식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우유 급식 여부를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치즈 등 유제품을 제공해 우유 급식률을 단계적으로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보상금 지연시 이자줘야"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국가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인정된 오모(76)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465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고정질서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며 "금전채권에 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지급청구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초의선사 흔들바위' 200년만에 찾았다

해남 두륜산서 관광지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치 확인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흔들바위를 밀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두륜산에서 고서(古書) 속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흔들바위가 발견됐다.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두륜산 위험구간 조사를 위해 등반하던 중 흔들바위, 속칭 동석(動石)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두륜산 흔들바위는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草衣) 선사가 편집한 대둔사지(大菴寺誌, 1816년 발행)의 유관(幽巖)편에 나오는 동석이다. 해남 대항사의 역사와 사적을 기록한 대둔사지에는 "동석은 북암 뒤편에 있으며 천인이 밀면 움직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밀면 움직인다"고 나와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 바위는 수풀이 우거져 찾을 수 없게 됐지만,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

사지 책 발간 200여년 만에 다시 발견한 것이다.

흔들바위는 두륜산 오십재에서 노송봉으로 올라가는 능선 등산로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전망대바위 남동쪽 20여m 지점에서 발견됐다.

바위는 둘레가 8m가량으로, 설악산 계조암의 흔들바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다. 손만 대면 금방이라도 서쪽 벼랑을 향해 굴러내릴 듯한 모습으로 놓여 있다.

흔들바위가 놓인 위치에서는 오도재 너머로 멀리 진도가 보이고, 병목암쪽 대기봉(연화봉)·혈망봉·향로봉·고계봉 능선이 바라다 보인다. 또, 북미륵암과 대항사가 바로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 7천원부터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